

우리 조합을 찾아오기 주저하는 당신에게 나와 스탭들을 소개할게요. 일로 만나는 것이니만큼 업무에 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부지런한 한량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에 관심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살다가 제주 여행 중에 입사를 결심했어요.

한 번의 고민을 하면- 한 번의 실행을 해야 하는- 행동파인데, 망하거나 성공하면 그제야 배우는 느린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조합의 스탭 중 한 명인 나는.. 반년이 넘도록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나는 주로, 관찰하고 녹음하고 촬영하고 인터뷰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련 책을 읽고 사례를 수집해서 기획서 ·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해요.

올봄엔 얼떨결에 두 번의 파티 PM도 맡았고, 여름엔 어렵사리 리모델링 현장 감독 일도 해봤어요.

가을엔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몰라서 독학에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아니예요, 도와주세요!! )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스탭들은 건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알맹이가 부실한 곳을 찾아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보편적 가치 아래에서, 자신의 업무 분야는 스스로 정하되, 스탭 모두가 ‘따로 또 같이’ 일해요.

업무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떤 툴을 사용하든 어떠한 방식의 결과물이든, 본인의 생각이 담겨있다면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줘요.

출퇴근도 자유로워서 현장 출장이 없다면 리모트워크로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나서 회의해요.

가끔은 눈에 보이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폐가 살리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기도 해요(사회적 협동조합).

나는 나와 전혀 다르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당신을 기다려요.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기는 싫어 회사를 떠난 천재 혹은 일반 회사의 반복적 업무에 지친 사람이라면,

한 우물만 판 게 경력이 된 전문가 혹은 이리저리 구르는 것을 즐기고 경력 따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면,

친구 · 취미 · 약속이 많지 않은 아티스트 혹은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해 함께 애써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무엇이 있는 핵인싸 혹은 모든 의견을 수용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겨울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신에게- 우리,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 어때요?